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of Women Immigrants on Satisfaction with life

이창식**
Chang Seek Lee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on satisfaction with life in women immigrants. The participants were 346 women immigrants in S city, Chungnam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such scales as satisfaction with life and family relationship. First,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ranked in order of couple, parents-in-law, and brothers-in-law and sisters-in-law. Second, as the women immigrants were younger, and their wedding time was shorter, satisfaction with couple was higher. Third, when women immigrants were between 20 and 30 years old in age, and between 2006 and 2010 in wedding year, satisfaction with parents-in-law were higher. Fourth, when women immigrants were between 20 and 30 years old in age, and 2006 and 2010 in wedding year, satisfaction with brothers-in-law and sisters-in-law were higher. Fifth, satisfaction with life was higher for women immigrants with younger age, lower educational level, and shorter residence and wedding time. Sixth, curve term more accounted for relationship between

* 2010년도 한서대학교 교비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e-mail: csl@hanseo.ac.kr

satisfaction with parents-in-law and life. Seventh, significant predi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with life were satisfaction with couple, and brothers-in-law and sisters-in-law.

주요어(key words): 부부관계 만족도(satisfaction with couple), 배우자부모와의 관계 만족도(satisfaction with parents-in-law), 곡선관계(curve term), 여성 결혼이민자(women immigrant), 삶의 만족(satisfaction with life

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로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2009년 12월 말 현재 결혼이민자는 125,087명으로 이중 남성이 15,876(23%)명, 여성이 109,211(8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0).

여성 결혼이민자는 여성이면서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으며, 혼인을 통하여 한국 이민이 허가된 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과의 혼인은 2009년 총 3만 3천 3백 건에 혼인 비중은 10.8%이며, 이러한 추세는 2004년 이후 전체 혼인의 10%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다(법무부, 2010).

결혼은 새로운 가족의 형성을 전제로 하며,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 형성은 물론 배우자의 가족인 배우자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 형성 또한 전제로 한다.

한편 삶의 만족은 각기 비중을 달리하는 다양한 삶의 구체적 영역 속

에서 느끼는 만족의 합(Cummins, 1996)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관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Liu 외, 2001).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그의 새로운 가족관계는 사회적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예컨대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혼의사가 낮으며(박재규, 2007), 여성 결혼이민자의 시부모 지지가 높을수록 부부 학대 또한 낮고(김오남, 2006), 시어머니의 정서적 지지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숙, 2006). 또한 박미정, 엄명용(2009)은 가족의 정보적 지지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유무가 이혼의사에 영향을 주는 등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가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가족관계에 따라 삶의 만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특히, 가족관계 중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척되었지만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나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배우자,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입안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문제

1)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가족관계와 삶의 만족은 어떠한가?
2)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삶의 만족은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가?

3)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선행연구 고찰

2.1. 여성 결혼이민자의 개념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2항에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1항)로 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결혼이민자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결혼이민자는 국적의 취득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인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중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이민자를 지칭한다. 그러나 법적인 해석의 모든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개발도상국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욕구와 경제적 동기를 이유로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서 이주한 여성들로 상징적으로 구상된다(정선애, 2007; 박지영, 2010)는 개념을 본 연구에서 받아들기로 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 하에 결혼이민자는 2009년 현재 125,087명이며, 이중 여성 결혼이민자는

109,211명(법무부, 2010)이다.

2.2.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가족관계는 가족구성원의 상호간 인간관계인데(유영주, 1994),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를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며, 30대 후반부터 평균이하로 떨어졌다(김승권 외, 2010).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높으나(김승권 외, 2010), 결혼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며,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김승권 외, 2010).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가 농촌보다는 도시에 거주하고, 재혼인 경우에 비해 초혼인 경우(김승권 외, 2010; 이지혜, 2008), 결혼 이유와 남편에 대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혜, 2008). 그리고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며(김오남, 2006; 박재규, 2006; 임안나, 2005), 전통적 생활양식의 문화 속에서 가부장적 태도를 가진 배우자와는 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오남, 2006). 이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서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29.3%(평균 3.85점)로 나타났으며(김승권 외, 2010), 특히, 한국인이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52.4%(2008년 사회통계조사)인데 반해 결혼이민자는 64.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김승권 외, 2010).

부모와의 관계는 사십대가 되도록 결혼을 못했거나 부모가 보기에도

‘좀 모자란’ 아들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외국인 며느리가 아들과 잘 살기를 바라면서 며느리를 보살피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의 경우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의 봉양을 받기보다는 어떻게든 잘 보살펴서 아들을 버리지 않고 살게 하려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잘해주는 시어머니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한건수, 2006). 반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시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보건복지부, 2005; 한건수, 2006; 이지영, 이미진, 2009), 전통적 가정의 시부모는 여성 결혼이민자 며느리에 대한 자율성 박탈과 억압으로 인하여 고부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오남, 2006).

한편 여성 결혼이민자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척되지 않았으며, 특히, 결혼 이민은 여성 이민자가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며, 한국의 사회, 문화적 구조와 환경의 영향 하에 삶의 기반이 전반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에서 가족관계와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3.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은 각기 비중을 달리하는 다양한 삶의 구체적 영역 속에서 느끼는 만족의 합(Cummins, 1996; Rojas, 2006)이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가족의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향후 농업활동참여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향후 지역사회활동 참여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순미, 2010). 또한 긍정적인 사회참여태도(김나영, 2007), 자신들의 모국문화 이해 노력(김미경, 2010), 사회적 지지의 유무와 사회적 지

지의 정도(Liu 외, 2001), 친정 방문 정도(김미경, 2010)에 따라서도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혜(2009)의 연구는 경제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거나 가족갈등이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혼이나 별거 등을 통한 결혼의 붕괴는 물론 낮은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김승권 외, 2010)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월평균 100~200만 원 미만이 38.4%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9 한국복지패널이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월 평균 가구소득 332만 2천원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소득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여성 결혼이민자의 57.0%가 대체적으로 현재 삶에 대해 만족한다고 반응하였다(김승권 외, 2010). 이러한 원인은 삶의 만족도가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각한 삶의 여건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고 행복하다고 느끼기(Pavot & Diener, 1993)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최근 입국자가 많기 때문에 모국에서의 생활수준에 익숙해져 있고, 그 수준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아직까지는 한국에서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짐으로서 스스로 설정한 삶의 만족 수준이 높아질 경우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2.4.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는 삶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남편과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고부갈등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미경, 2010). 정주연(2008)의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관계의 정서친밀과 수용존중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족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단위이다.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에 첫발을 내 딛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새로운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국어 습득은 물론, 인간관계 형성, 한국 문화 적응, 자녀 생산 및 양육 등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관계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및 학문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 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는 충남 서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서산시[1]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태조사는 서산시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등록자)조사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다문화 가족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 여성 결혼이민자가 직접 기재한 설문지를 바로 회수하는 방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참가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2009년 8~9월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지역인 서산시 총 인구는 161,238명, 세대 수는 62,721세

1) 서산시는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농촌인 읍·면에 거주함.

대, 이중 내국인 159,243명(98.8%), 외국인 2,421명(2.2%)이다(서산시, 2010). 조사대상은 서산시 여성 결혼이민자 346명이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평균 32.94세 이었으며, 이중 20대가 46.2%로 가장 많았고, 30대 31.5%, 40대 14.7% 순이었으며, 60대는 1.4%(5명)로 가장 적었다. 조사대상의 평균 한국거주기간은 4.57년 이었으며, 1년 이상 5년 미만 거주기간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가 5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자가 19.7%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31.5%가 고등학교 졸업이었으며, 중학교 졸업 28.4%, 대학 졸업 22.6%로 나타났고, 대학원 졸업도 1.4%에 이르러 학력에서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다. 결혼연도는 2006에서 2010년 사이에 결혼한 이민자가 5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1~2005년 사이 30.6%, 2000년 이전 1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연령 (평균= 32.94세)	20대	160	46.2	한국 거주기간 (평균= 4.57년)	1년 미만	34	9.8
	30대	09	31.5		1년이상~5년미만	194	56.1
	40대	51	14.7		5년이상~10년 미만	68	19.7
	50대	21	6.1		10년이상~15년 미만	45	13.0
	60대	5	1.4		15년 이상	5	1.4
	합계	346	100.0		합계	346	100.0
교육수준	무학	2	.6	결혼 연도	2006~2010년	191	55.2
	초등	34	9.9				
	중등	98	28.4		2001~2005년	106	30.6
	고등	128	37.1				
	대학	78	22.6		2000년 이전	49	14.2
	대학원	5	1.4				
	합계	345	100.0		합계	346	100.0

3.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8개 외국어로 번역하였으며, 부부관계,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언어능력의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1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만족한다부터 매우 불만족한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만족함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 역시 1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만족한다부터 매우 불만족한다의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함을 의미한다.

통제변인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한국거주기간, 결혼연도를 선택형 문항을 주로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3.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PC+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척도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적용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 교육수준, 한국거주기간, 결혼연도에 따른 가족관계와 삶의 만족 차이는 평균비교 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Duncan과 Dunnette(T3)를 적용하였으며, 가족관계에 따른 삶의 만족 변화는 단순회귀분석의 곡선추정을 활용하였다. 또한 특성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일반적 경향

주요 변인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변인 모두 최소값이 1점, 최대값 5점이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평균 4.0087점으로 만족한다는 반응이었으며,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는 3.9817,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3.8353으로 조사대상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 3.7907로 보통(중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배우자와의 관계	1	5	4.0087	1.0245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1	5	3.9817	.98378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1	5	3.8353	.97477
삶의 만족	1	5	3.7907	.9733

4.2.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와 삶의 만족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 교육수준, 한국거주기간, 결혼연도에 따른 배우자와의 관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연령과 결혼연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배우자 관계는 연령이 20대인 경우가 30대와 40대 이상인 경우보다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적은 경우에 배우자

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연도에 따라서는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결혼한 이민자가 2000년 이전에 결혼한 이민자보다 배우자 관계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의 적응에 따른 어려운 경험이 적고, 기대수준이 아직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수준과 한국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배우자와의 관계

구 분		N	M	SD	F	Duncan /T3
연령	20대	159	4.2013	.92627	5.469**	a
	30대	108	3.8704	.93821		b
	40대 이상	76	3.8026	1.25454		b
	전체	343	4.0087	1.02451		
교육수준	초졸 이하	36	4.3889	.90326	2.14	NS
	중졸	97	3.9794	.98931		
	고졸	127	3.9055	1.14388		
	전문대졸 이상	82	4.0366	.89505		
	전체	342	4.0088	1.02602		
한국거주기간	1년 미만	34	4.2353	.85489	1.968	NS
	1년 이상~5년 미만	193	4.0725	1.03829		
	5년 이상~10년 미만	68	3.8676	.94481		
	10년 이상~15년 미만	8	3.7917	1.14777		
	전체	343	4.0087	1.02451		
결혼연도	2006-2010년	189	4.1587	.93751	5.480**	b
	2001-2005년	106	3.8962	1.08610		ab
	2000년 이전	48	3.6667	1.11724		a
	전체	343	4.0087	1.02451		

** p<.01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 교육수준, 한국거주기간, 결혼연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구 분		N	M	SD	F	Duncan/T3
연령	20대	160	3.9875	1.00306	.059	NS
	30대	109	3.9174	.94407		
	40대 이상	77	4.0649	1.00443		
	전체	346	3.9827	.98378		
교육수준	초졸 이하	36	4.2222	.86557	1.555	NS
	중졸	98	4.0306	1.01995		
	고졸	128	3.9844	.92203		
	전문대졸 이상	83	3.8193	1.07232		
	전체	345	3.9826	.98520		
한국거주기간	1년 미만	34	3.9412	.95159	.188	NS
	1년이상~5년 미만	194	4.0103	1.04802		
	5년이상~10년 미만	68	3.9853	.92224		
	10년이상~15년 미만	50	3.9000	.83910		
	전체	346	3.9827	.98378		
결혼연도	2006~2010년	191	4.0576	.95798	1.443	NS
	2001~2005년	106	3.9245	1.07525		
	2000년 이전	49	3.8163	.85813		
	전체	346	3.9827	.98378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와 같이 연령과 결혼연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에 따른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연령이 20대인 경우가 30대인 경우보다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연도 따라서는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결혼한

경우가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보다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20대이고 결혼기간이 짧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의 적응에 따른 어려운 경험이 적고, 기대수준이 아직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수준과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구 분		N	M	SD	F	Duncan/T3
연령	20대	160	3.9875	.91106	3.727*	b
	30대	109	3.6881	.95933		a
	40대 이상	77	3.7273	1.08381		ab
	전체	346	3.8353	.97447		
교육수준	초졸 이하	36	4.1389	.86694	2.454	NS
	중졸	98	3.8980	.96847		
	고졸	128	3.8281	.98899		
	전문대졸 이상	83	3.6386	.98251		
	전체	345	3.8348	.97585		
한국거주기간	1년 미만	34	3.9706	1.02942	1.512	NS
	1년 이상~5년 미만	194	3.9021	.97942		
	5년 이상~10년 미만	68	3.7206	.94388		
	10년 이상~15년 미만	50	3.6400	.94242		
	전체	346	3.8353	.97447		
결혼연도	2006-2010년	191	3.9791	.94009	4.917**	b
	2001-2005년	106	3.6887	1.06336		a
	2000년 이전	49	3.5918	.81441		a
	전체	346	3.8353	.97447		

*p<.01, **p<.01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연령, 교육수준, 한국거주기간 및 결혼연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초졸 이하인 경우가 중졸 이상

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학력이 낮은 경우 삶의 기대수준이 낮기 때문에 만족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주기간에 따라서는 1년 미만인 경우가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인 집단의 경우보다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한국에서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입국초기의 한국에 대한 기대수준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현실수준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결혼연도에 따라서는 결혼연도가 최근일수록 삶의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 또한 한국거주기간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표 6〉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

구 분		N	M	SD	F	Duncan/T3
연령	20대	158	4.0696	.88955	16.175***	c
	30대	109	3.6972	.86607		b
	40대 이상	77	3.3506	1.09744		a
	전체	344	3.7907	.97330		
교육수준	초졸 이하	34	4.2647	.82788	3.607*	b
	중졸	98	3.8163	1.00869		a
	고졸	128	3.6563	1.03815		a
	전문대졸 이상	83	3.7711	.83118		a
	전체	343	3.7901	.97466		
한국거주기간	1년 미만	32	4.0938	.77707	5.490**	c
	1년 이상~5년 미만	194	3.9021	.99517		bc
	5년 이상~10년 미만	68	3.6176	.82912		ab
	10년 이상~15년 미만	50	3.4000	1.04978		a
	전체	344	3.7907	.97330		
결혼연도	2006-2010년	189	4.0476	.85232	18.801***	c
	2001-2005년	106	3.5943	1.02147		b
	2000년 이전	49	3.2245	.98457		a
	전체	344	3.7907	.97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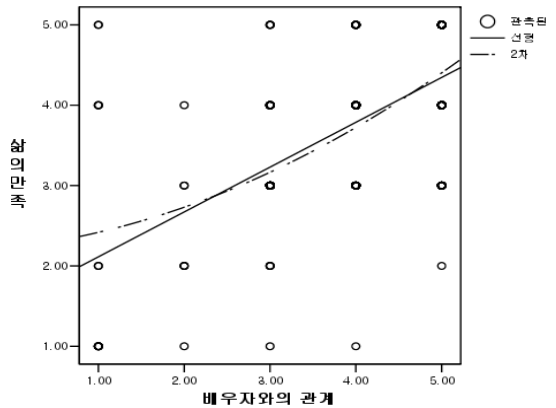
*p<.01, **p<.01, ***<.001

4.3.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에 따른 삶의 만족 변화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라 삶의 만족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의 곡선추정을 실시한 결과 선형적 및 곡선적 관계 모두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보다 설명력 있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형적 관계와 곡선적 관계의 R^2값을 비교한 결과 선형적 관계의 설명력은 34.2%, 곡선적 관계의 설명력은 34.9%로 두 관계 간에 큰 차이가 없어 두 변인의 관계가 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처럼 배우자 관계 만족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른 삶의 만족에 대한 곡선추정

Method	R^2	d.f.	F	Sig.
Linear	.34225	339	176.39726	.0000
Quadratic	.34979	338	90.91501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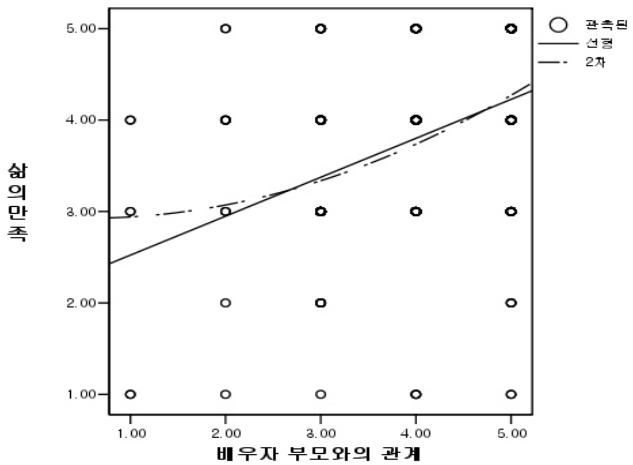


〈그림 1〉 배우자와의 관계와 삶의 만족간의 관계

다음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삶의 만족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의 곡선추정을 실시한 결과 선형적 및 곡선적 관계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관계의 R^2값을 비교한 결과 선형적 관계는 18.5%, 곡선적 관계는 19.1%로 곡선적 관계가 다소 높았다. 이를 〈그림 2〉에서 보면 삶의 만족이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증가에 따라 다소 곡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8〉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삶의 만족에 대한 곡선추정

Method	R^2	d.f.	F	Sig.
Linear	.18525	342	77.76053	.0001
Quadratic	.19136	341	40.34900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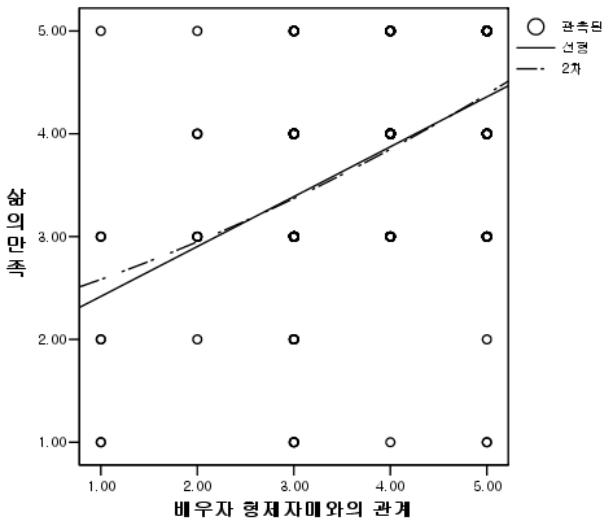


〈그림 2〉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와 삶의 만족간의 관계

다음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따라 삶의 만족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의 곡선추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형적 및 곡선적 관계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관계 모형의 R^2값을 비교한 결과 선형적 관계는 23.5%, 곡선적 관계는 23.7%로 두 관계가 큰 차이가 없어 선형적 관계로 나타났다. 〈그림 3〉 또한 선형적 관계와 곡선적 관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9〉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따른 삶의 만족에 대한 곡선추정

Method	R^2	d.f.	F	Sig.
Linear	.23544	342	105.31608	.0000
Quadratic	.23688	341	52.86565	.0000



〈그림 3〉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와 삶의 만족간의 관계

4.4.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변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특성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변인을 파악하기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삶의 만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 Leverage 값, 공차한계(Tolerance), 상승변량(VIF) 값을 산출하였다. 잔차의 독립성을 파악하는 Durbin-Watson 값은 1.881으로 정상범위(0-2) 내의 값을 가지며, 극단치를 파악하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는 각각 0.579-66-642, 0.000-0.070, 그리고 중심화된 Leverage 값은 0.002-0.197로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파악하는 공차한계(Tolerance)는 0.386-0.971, 상승변량(VIF)은 1.020-2.595로 각각 정상범위 1이하와 1-9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 삶의 만족에 대한 전체 설명량은 44.5%였으며, 통제변인인 특성변인을 제외한 가족관계 변인의 전체 설명량은 33.3%로 특성변인보다 가족관계 전체 변인의 설명량이 높았으며 그 중에서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 변인을 투입하였을 경우 설명량이 28.8% 상승하여 가장 높은 R2 변화량을 보였다.

모형 4에서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는 모형 3에서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4에서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변인을 동시 투입함으로써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변인이 상쇄되어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

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은 특성 변인을 통제했을 경우 배우자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예측 변인이었으며, 다음으로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높을수록,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삶의 만족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삶의 만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B(β)	B(β)	B(β)	B(β)
특성	연령	-.016(-.163*)	-.013(-.126*)	-.016(-.161**)	-.015(-.149**)
	교육수준	-.101(-.100)	-.078(-.078)	-.061(-.060)	-.054(.054)
	한국거주기간	.038(.151)	.033(.132)	.028(.115)	.028(.113)
	결혼연도	.087(.324**)	.065(.244**)	.057(.211*)	.055(.206*)
가족관계	배우자		.520(.545***)	.423(.444***)	.397(.416***)
	배우자 부모			.215(.217***)	.113(.114)
	배우자 형제자매				.154(.154*)
F		10.527***	44.498***	42.817***	37.969***
R^2 변화량		.112	.288	.036	.009
R^2		.112	.400	.436	.445

*p<.05, **p<.01, **p<.001

5. 결론 및 제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

는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관계 만족의 순서는 배우자,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까움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며, 다음으로 배우자의 형제자매보다는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가르침에서부터 한국 문화 적응에 다양한 도움 역할을 하는 배우자의 부모가 가까운 사이이다. 또한 사십대가 되도록 결혼을 못했거나 부모가 보이에도 '좀 모자란' 아들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외국인 며느리가 아들과 잘 살기를 바라며 며느리를 보살피는 경우에 부모가 여성 결혼이민자 며느리에게 눈치보며 잘 해주기 때문에(한건수, 2006) 관계 만족도가 배우자 다음으로 부모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연령과 결혼연수가 감소할수록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부부관계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이지혜(2008; 김승권 외, 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부부갈등이 높다는 김오남(200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였다.

셋째,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는 연령이 20대인 경우가 30대인 경우보다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결혼한 경우가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보다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낮거나 결혼이민의 기간이 적은 경우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가 보다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20대이면 부모와의 연령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 차에 의한 이해와 용서가 쉬운 경우이다. 또 하나는 결혼기간이 짧다는 의미는 이주한 기간이 길지 않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언어와 적응 문제를 가진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관계가 호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연령이 20대인 경우가 30대인 경우보다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결혼

한 경우가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보다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도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이해와 용서가 보다 용이하고 역할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다섯째, 삶의 만족은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초졸 이하인 경우가 중졸 이상인 경우보다, 거주기간과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가 삶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판단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지각한 삶의 여건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고 행복하다고 느끼는(Pavot & Diener, 1993)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거주기간과 결혼기간이 적을수록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 수준은 낮을 수 있을 것이고, 점차 한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삶의 만족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이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우자관계, 삶의 만족 등에서 만족 수준이 감소한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여섯째,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와 삶의 만족 간 관계는 곡선적 관계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되었다. 반면 배우자와의 관계와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선형적 관계에 의해 보다 설명이 잘 되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가 다소 복잡하게 삶의 만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즉,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가 거의 매우 만족이라는 수준에 근접할 때(〈그림 2〉 참조) 삶의 만족이 보다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상황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은 배우자와의 관계와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미경(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여성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가 삶의 만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즉, 몇몇 연구(김미경, 2010: 김영란, 2006: 임경혜, 2004; 설동훈 외, 2005; 최금혜, 2006: 홍기혜, 2000)에서 시부모와의 갈등과 낮은 삶의 만족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회귀분석의 모형3에서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나 모형4에서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변인이 상쇄되어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요청된다.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가족관계를 독립변인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삶의 만족과 가족관계 만족은 상호작용하는 관계 즉, 삶의 만족이 가족관계 만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관계 만족이 삶의 만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호작용 관계도 가능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 관계도 연구설계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1개의 시(市)에서 얻을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에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추후연구에서는 전국 수준의 데이터 수집을 통한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언어 장벽 때문에 가족관계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를 1문항으로 측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할 수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번역,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다음 설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이 연구는 2차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결과 즉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 및 만남의 빈도, 배우자의 경제수준, 학력 및 자녀 유무 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변인들을 추가하여 살펴볼 경우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다 설명력있는 영향 변인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나영.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경. (2010). 결혼이주여성의 고부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혜경, 설동훈, 정기선, & 심인선. (2009).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 부・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0-06.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적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김오남. (2006). 여성 결혼이민자 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김정혜.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미정, & 엄명용. (2009). 여성 결혼이민자 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1-26.

박재규. (2006).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이혼고려 관련성 분석. 농촌사회, 17(2). 1-20

박재규.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사회, 17(2). 75-105.

박지영. (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와 관련 변인. 농촌지도와 개발, 17(2), 305-326.

법무부. (201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과천: 보건복지부.

서산시. (2010). 서산시통계연보. 서산: 서산시청.

설동훈, & 윤홍식. (2005). 국내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10, 247-265.

양순미. (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 태도가 미치는 효

과. 농촌사회, 20(1). 233-263.

유영주. (1994).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이지영, & 이미진. (2009). 결혼이민자 여성의 고부관계와 수발의식. 노인복지연구, 46, 127-156.

이지혜. (2008).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경혜. (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역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안나. (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선애. (2007). 일하고 싶은 결혼이주여성, 현모양처가 좋은 이주여성 정책. 한국여성인권센터 2007 정기심포지움.

정주연.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사회복지학생연구논총, 1, 228-262.

최경숙.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금혜. (2006).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연구, 44(1), 329-364.

통계청. (2010). 2009년 혼인통계결과. 대전: 통계청.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729-741.

행정안전부. (2009). 내부자료.

홍기혜. (2000). 중국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ummins, R. A. (1996). The domains of life satisfaction: An attempt to order chao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8, 303-332.

Liu, M. F., Chung, H. H., & Hsu, M. T. (2001). Adaptation of foreign brides in Taiwan: Implications for nursing. *The Journal of Nursing*, 48(4), 85-89.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64-172.

Rojas, M. (2006). Life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in domain of life: Is it a simple relationship?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467-497. http://kostat.go.kr

논문투고일: 2010. 10. 15
1차수정일: 2010. 11. 5
게재확정일: 2010. 12. 10